

한국전통 주거건축 및 마을 입지의 풍수적 해석

- 예천 권씨 종택 사례연구 -

권영휴* · 심우경** · 고제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조경학 박사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대동 풍수지리연구원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거환경의 자연적 요소인 지형지세, 향과 일조, 미 기후 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입지선정에 대해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한국의 전통사상 중 풍수사상이 주거건축 및 마을의 입지(이하 “주거입지”라 함)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주거입지와 관련된 풍수의 연구는 풍수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는 형기론(形氣論) 물형론(物形論)에 치우쳐 연구되고 있거나 지형의 물리적인 형태분석에 그치고 있어 한국의 주거입지가 갖는 풍수적 특성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몇 가지 제약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주택의 입지선정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며 다른 이유로는 풍수이론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입지에 대한 해석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양과 동양의 이론이 통합된 입지선정기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최종목표로 하며 그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첫째, 지금까지의 풍수 연구에서 난해한 이론이라 하여 소홀히 취급되었던 이기론(理氣論) [좌향론(坐向論) · 득수론(得水論)]을 고찰하여 입지분석에 활용이 용이하도록 적용이론을 체계화하고, 둘째, 앞의 체계화되고 정리된 이론을 조선시대의 주거입지에 적용하여 해석함으로써 주거입지가 갖는 풍수특성을 분석코자 하며, 입지해석 외에도 건축의부공간 배치에 대한 양택론적(陽宅論的) 해석(解釋)을 병행함으로써 조선시대의 전통주거건축의 외부공간이 갖는 풍수적 특성을 규명코자 하였다. 셋째, 풍수적으로 해석한 동 입지에 대해 GIS를 이용한 공간분석을 통해 풍수적 길지(吉地)가 갖는 물리적 공간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연구과제인風水적 길지(吉地)들이 갖는 입지특성을 유형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주요 과정 중의 하나인 사례지에 대한 풍수적 해석 내용이 한국의 주거 건축사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풍수이론을 체계화함으로서 신비성(神祕性)이 가미된 풍수이론 논의의 객관화를 위한 바탕을 제공코자 하였다. 풍수를 연구하는 목적은 풍수 그 자체가 가지는 신비(神祕)나 영험(靈驗) 그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선조들이 풍수를 어떻게 건축에 응용을 했고 무엇을 고민했는가를 규명코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땅에 대해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인식체계(認識體系)를 공유코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준 전통적인 풍수지리의 연구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표 1의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표 1. 사례연구 대상지 개요

대상지	조영자	건립시기	소재지	문화재 지정
예천 권씨 종택	권문해의 조부	조선 전기의 사대부 가옥	경북 예천군 용문면 죽림리	중요민속자료 제210호

풍수이론의 고찰은 본 연구가 조선시대의 주거 입지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므로 조선시대 음양과의 과거 시험과목으로 채택되었던 풍수서적 중 현존하는 서적인「청오경(靑烏經)」,「금낭경(錦囊經)」,「지리신법(地理新法)」,「명산론(名山論)」등과 이들을 기본으로 용(龍), 혈(穴), 사(砂), 수(水), 향(向)의 이기론(理氣論)을 정리한 「지리오결(地理五訣)」을 주된 참고자료로 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제고코자 하였으며, 동 이론을 준거로 사례지 적용을 위한 풍수이론의 흐름을 체계

화하였다. 주거건축의 외부공간에 관한 풍수이론의 고찰은 조정동(趙廷東)의 「양택삼요(陽宅三要)」를 참고로 하였다. 다음으로 문헌조사를 통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중 풍수적 유래가 있는 지역을 선정한 후 주택의 조성연혁과 입지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사례조사에서는 육안(肉眼)에 의한 地形鑑別과 패철(佩鐵)을 이용한 실측(實測)을 병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체크리스트와 지형도 및 주택평면도에 기록하였다.

II. 본 론

1. 이론적 고찰

1) 풍수지리의 이론체계

풍수지리는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생태적인 사상이라 할 수 있다. 풍수지리에서는 천지음양오행(天地陰陽五行)의 기(氣)를 일원적, 혼일적(混一的)인 혼용무간(渾融無間)한 일기(一氣)로 보아 천기(天氣)가 하강한 것을 지기(地氣), 지기가 상승(上昇)한 것을 천기(天氣)로 보고 또 음양(陰陽)의 기(氣)가 지중(地中)에 있을 때를 생기(生氣) 혹은 내기(內氣)라 하여 인간을 비롯한 만물이 이 생기(生氣)의 발로를 받아 생장번창(生長繁昌)할 수 있다고 본다. 풍수지리의 구성은 산, 수, 방위, 사람 등 사자(四者)의 조합으로 성립되며 구체적으로는 간룡법(看龍法), 장풍법(藏風法), 득수법(得水法), 정혈법(定穴法), 좌향론(坐向論), 형국론(形局論) 등의 형식논리를 갖는다. 풍수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여섯 가지 모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풍수이론은 중점을 두는 분석기법에 따라 형기론(形氣論) [형세파(形勢派)]과 이기론(理氣論) [방위파(方位派)]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건축물의 배치와 관련된 양택풍수이론으로는 동·서사택론 등이 있다.

2) 이기론의 개념

이기론(理氣論)은 산세의 모양이나 흐름을 눈으로 보아 혈(穴)을 찾는 형기론(形氣論)과 산천형세의 모양을 사람, 동물 등의 모양과 견주어 혈(穴)을 판단하는 물형론(物形論)과는 다른 이론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기론(理氣論)은 바람과 물의 순환궤도(循環軌度)와 양(量)을 분석하여 혈(穴)을 찾고 좌향(坐向)을 선택하는 풍수이론으로, 바람과 물의 순환(循環)을 중시함

으로써 득수론(得水論), 패철(佩鐵)로 혈(穴)을 찾음으로써 패철론(佩鐵論), 좌향(坐向)을 중시함으로써 좌향론(坐向論)이라 부르기도 한다. 당나라의 양균송(楊筠松)은 풍수에 처음으로 천문을 도입하였으며, 송(宋)나라의 호순신(胡舜申)은 「지리신법(地理新法)」에서 이기론(理氣論)의 주요논리인 12운성법(運星法)을 기술하였다. 12운성법은 바람과 물의 흐름에 따라 땅의 기운이 12단계로 길흉(吉凶)이 나뉘어짐을 말한다. 이기론(理氣論)은 좌향론(坐向論)이라 불릴 만큼 향(向)을 중요시 여긴다. 생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기(陽氣)의 순환(循環)과 양(量) 중에서, 생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에 가장 적당하고도 알맞은 양(量)의 양기(陽氣)를 취할 수 있는 선택된 방위(方位)를 좌향(坐向)이라고 본다. 이기론(理氣論)의 좌향법(坐向法)은 청나라의 조정동(趙廷東)에 의해 88향법(88向法)으로 체계화되었다.

III. 결과 및 고찰

1. 주거건축 입지의 풍수적 해석

먼저 입지연혁(立地沿革) 및 풍수유래(風水由來)를 고찰하고, 주산(主山)과 내룡(來龍), 사신사(四神砂)와 장풍(藏風), 국(局)과 파(破), 내룡(來龍)의 이기(理氣), 득수(得水), 사봉(砂峰), 좌향(坐向)의 순서로 분석하였다. 건축입지의 해석결과, 진파(辰破)로 수국(水局)이며 내룡(來龍)은 신술룡(辛戌龍)인 관대룡(冠帶龍)으로 길룡(吉龍)이다. 주산(主山)이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고, 청룡(靑龍)과 백호(白虎)가 반원(半圓)처럼 마을을 감싸안아 장풍(藏風)이 잘 된 마을이다. 안산(案山)과 조산(祖山)도 수려하다. 좌향(坐向)은 자연(自然)이 좌선수(左旋水)이고 수구(水口)가 진파(辰破)이므로 동향인 묘향(卯向)을 놓아야 정법(正法)이다. 사례지 주택은 정법(正法)인 유좌묘향(酉坐卯向)을 하였다.

2. 마을 立地의 風水的 解釋

양기(陽基)가 갖는 풍수적 특성은 국(局)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수 마을의 입지 전체를 대상으로 파(破)와 국(局)을 분석하였다. 해석결과 마을 입지 대부분이 진파(辰破)인 수국(水局)으로 묘파(墓

破)에 해당되어 자연(自然)의 흐름이 매우 좋은 곳이다. 마을의 집들은 자연(自然)이 좌선수(左旋水)이고 수구(水口)가 진파(辰破)입으로 동향(東向)인 묘향(卯向)을 놓아야 정법(正法)이다. 양기(陽氣)는 건해방(乾亥方)과 계축방(癸丑方)에서 도래(到來)하는데, 건해(乾亥) 임관수(臨官水)와 계축(癸丑) 쇠수(衰水) 모두 길수(吉水)이다.

3. 주거건축 외부공간의 풍수적 해석

사랑채 공간은 사랑채와 창고를 감싼 담장이 없어 풍수적 길흉(吉凶)을 판단하기 어렵다. 안채 공간의 문(門)과 주(主)는 진문경주(辰門庚主)로 팔괘(八卦) 상(上) 손문대주(巽門兌主)이다. 동문서주(東門西主)에 해당되어 흉(凶)한 배치(配置)이다. 음양(陰陽)은 음문음주(陰門陰主)로 배합(配合)하지 못하였고, 오행(五行)은 목문금주(木門金主)로 흉(凶)하다. 전체적으로 잘못된 배치(配置)라고 볼 수 있다. 안채공간의 문(門)과 조(灶)는 음양(陰陽)은 음문음조(陰門陰灶)로 배합(配合)하지 못하고, 오행(五行)은 목문화조(木門火灶)로 상생(相生)하는 배치로 분석되었다.

4. 주거건축 및 마을입지의 물리적 공간 특성 분석

주거건축의 입지는 해발고도 154M에 위치하며 경사도는 10%미만, 향은 동향에 위치하고 있다. 주택에서 대하천까지의 최소거리는 623m이며, 소하천까지의 최소거리는 95m이다. 대하천은 주택을 중심으로 북서쪽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소하천은 동향으로 흐르고 있다. 주산, 청룡, 백호, 안산까지의 거리는 각각 372m, 165m, 61m, 2129m로 분석되었다.

IV. 결론

본 연구는 풍수이론 중, 지금까지 소홀히 취급되었던 이기론(理氣論) [좌향론(坐向論), 득수론(得水論)]을 중심으로 주거건축 및 마을 입지가 갖는 풍수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대수 마을은 주산이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 주고 청룡(靑龍)과 백호(白虎)가 반원(半圓)처럼 마을을 감싸 안았으며, 안산(案山)과 조산(祖山)이 수려한 길지(吉地)로 분석되었다. 권씨 종택은 관대룡(冠帶龍)

과 유좌묘향(西坐卯向)으로 좋은 입지(立地)와 정법(正法)인 향(向)을 놓아 길지(吉地)에 입지(立地)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주거건축의 외부공간배치는 동서사택(東西四宅)과 음양(陰陽)이 배합(配合)하지 못하는 흉(凶)한 배치를 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상의 연구는 필자가 향후 진행 예정인 45개 전통 주거입지에 대한 사례지 별 비교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이다. 이를 통해서 전통적 입지선정에 관한 풍수적 개념정립과 풍수이론의 보편 타당성에 대한 입증, 주거입지가 갖는 풍수적·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전통계승의 측면에서 현대의 도시나 주거단지 계획에 풍수이론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풍수의 현장 적용을 위한 이론의 체계적 정리, 전통적인 도시 및 주거의 풍수이론 적용사례 연구는 물론 풍수적(風水的) 길지(吉地)가 갖는 공간의 크기와 형태, 양기(陽氣) [풍(風)과 수(水)]의 흐름과 양(量), 지질(地質) 등과 같은 물리적 제 환경특성이 과학적으로 분석되고 증명되어야 한다.

인용문헌

1. 권영휴, 심우경, 고재희(2001) 한국전통 주거입지에 관한 이기풍수론적 해석. 한국정원학회.
2. 권선정(1991) 취락립지에 대한 풍수적 해석.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3. 고재희(1999) 감여요결. 대동풍수지리연구원(미발표자료).
4. 대한민국토도시계획학회(1998) 도시계획론. 보성각.
5. 박시익(1987) 풍수지리설의 발생배경에 관한 분석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6. 이덕희(1976) 한국사상의 원천. 박영사.
7. 이병도(1986) 고려시대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8. 이몽일(1990) 한국풍수지리의 변천과정.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9. 이승희(1995) 양택론적 방위론의 해석에 관한 연구.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10. 주남철(1997)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1. 최창조(1989)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2. 최창조(1992) 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 민음사.
13. 현중영, 박찬용(1998) 조선시대 전통주택 풍수의 좌향. 한국정원학회지 16(3)
14. 명산론.
15. 조구봉, 유태우 역(1981) 양택삼요. 서성서국.
16. 조정동(청대) 양택삼요.
17. 조정동, 신평 역(1999) 지리요결. 동학사.
18. 혼산지순, 최길성 역(1995) 조선의 풍수. 민음사.
19. 청오자, 광박, 최창조 역(1995) 청오경·금낭경. 민음사.
20. 호순신(송대) 지리신법.
21. Shang Kuo, 심우경, 이창호 역(1997) 중국풍수이론연구 (1). 환경과 조경
22. Sarah Rossbach 외 3인, 최창조(1992) 터잡기의 예술. 민음사.